

사회

2009 아름다운 동행, 그 이후 ② 해남 베트남전우회·이주여성

“화목한 가정 꾸려 은혜 보답할게요”

(사)베트남참전 유공전우회 해남지회와 양부·양녀 결연을 맺은 웨티탄튀(오른쪽 세 번째)씨 등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7명이 최근 해남읍 김지현(61)씨의 집에서 자리를 함께 했다.

“한국에서 맛은 새 부모님들의 도움으로 베트남 친정에 오게 돼 꿈만 같아요. 화목한 가정을 꾸려서 은혜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을 설에 해남군 해남읍의 양부 모 김지현(60)·서초희(여·56)씨 집에 새해 인사를 갔던<본보 1월 28일자 7면> 웨티탄튀(23·한국명)

이주여성 22명과 양부·양녀 결연 사업**베트남 친정 나들이·한글 교실 운영도**

김성희(씨)씨는 지금 베트남 호치민의 친정집에서 ‘꿀맛’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씨 등 양부모들의 도움으로 지난 2005년 해남으로 시집온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민경신(41)씨, 아들 호연(3)군과 함께 친정 나들이에 나선 것이다.

웨티탄튀씨는 지난 2007년 11월 (사)베트남 참전 유공전우회 해남지회(이하 해남지회)가 마련한 ‘베트남 이주여성과의 양부·양녀 결연사업’을 통해 인연을 맺은 뒤 물

게 전화가 왔는데, 친정 어머니가 수차례나 딸을 불러줘서 고맙다고 하더라”며 “우리 부부가 웨티탄튀 부모님을 대신해 잘 보살피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했다”고 말했다.

이들처럼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와 해남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은 모두 137명. 대부분 배움이 짧고 사회적으로 약자 위치에 놓인 남성들에게 시집을 았다는 것과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는 점이 적다는 것이 가장 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현호기자 khh@kwangju.co.kr

서해안 등 시속 110km 제한 고속도로

최고속도 120km로 올린다**경찰청, 도로법 개정 추진**

서해안 등 시속 110km로 제한된 고속도로의 최고속도가 120km로 상향 조정된다. 또 현행 시속 100km인 경부 고속도로의 서울~천안 구간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110km로 올라간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1일 경찰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고속도를 고속도로 설계속도보다 높게 할 수 없다’고 규정된 조항을 ‘도로가 건설된 이후 구조가 개량되거나 직선화되는 등 정비된 경우는 최고속도를 설정보다 높게 할 수 있다’로 바꾸

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설계 최고속도가 시속 100km인 경부고속도로도 커브 구간을 위험한 곳을 빼고 최고속도를 시속 110km로 올릴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협행법상 시속 110km로 제한된 고속도로 최고속도를 120km로 10km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해당하는 고속도로는 최고속도가 시속 110km로 돼 있는 서해안, 중부, 제2중부, 중부내륙, 천안~논산, 중앙(대구~부산 구간), 당진~상주, 서천~공주 등 8개 노선이다.

경찰은 내년에 1~2군데를 정해 도로공사의 시설 개선 작업이 끝나는 대로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충장축제 다시 찾겠다” 56%**광주시민 만족도 조사**

광주 7080 충장축제가 구도심의 상권활성화는 물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은 지난 10월 13일부터 사흘간 광주시민 139명을 대상으로 ‘7080 충장 축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각각 53.2%(74명)와 51.8%(72명)가 축제로 인해 구도심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문화가 발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충장축제의 성공요소로는 독특한 특색(26.1%), 적극적인 홍보(22%), 상인들의 주인의식(20.1%)을 꼽았으며, 미흡한 분야는 체험프로그램 개발(27%), 신세대에 맞는 프로그램(25%), 행사 안내 및 질서유지(17%) 등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시민 중 절반 이상인 56.1%(78명)가 내년에도 7080 충장축제를

다시 찾겠다고 밝혔다.

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은 임승호 선임연구원은 “축제기간 중 대폭 세일 등 충장로 상인들의 적극적인 유인책과 경제적인 효과를 높이는 정책 대안이 개발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며 “특히 7080 대체를 넘어서 신세대 까지 그 쪽을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풍향초 사이버정학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의식 확산을 위해 시행한 정보통신 윤리교육 캠페인에 참여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광주 풍향초등학교를 우수 사이버정학교로 선정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롭 07시 37분 해침 17시 25분

달롭 11시 00분 달침 22시 40분

동지(冬至)

대체로 맑다가 오후들어 점차
흐려지겠다.

광주	맑은 뒤 흐림	-2/9°C
목포	맑은 뒤 흐림	0/8°C
여수	맑은 뒤 흐림	2/10°C
완도	맑은 뒤 흐림	1/8°C
구례	맑은 뒤 흐림	-4/9°C
해남	맑은 뒤 흐림	-3/9°C
장흥	맑은 뒤 흐림	-3/9°C
고흥	맑은 뒤 흐림	-2/11°C
순천	맑은 뒤 흐림	-2/10°C
영광	맑은 뒤 흐림	-2/9°C
전주	맑은 뒤 흐림	0/9°C
제주도	비 또는 눈	-2/9°C
남원	맑은 뒤 흐림	-6/8°C
속산도	맑은 뒤 흐림	4/8°C

〈오전〉 비다	풍향	파고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증지수
서해 남부 일비다	남서~서	0.5~1.5m	밀물	05:02	10:24
남부 일비다	남서~서	1.0~2.0m	목포	17:39	23:05

〈오후〉 비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일비다	남서~서	1.0~1.5m	05:02	10:24
남부 일비다	남서~서	1.0~2.0m	목포	17:3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3(수)
날씨	晴
최저/최고	2/10
날짜	24(목)
날씨	晴
최저/최고	2/11
날짜	25(금)
날씨	晴
최저/최고	4/7
날짜	26(토)
날씨	晴
최저/최고	-1/3
날짜	27(일)
날씨	晴
최저/최고	-2/4
날짜	28(월)
날씨	晴
최저/최고	-2/2

광신대학교

인터넷 학부 605-1114 / 대학원 605-1115

국립공원 생태관광 바우처**지원대상 6천명으로 확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국립공원 생태관광을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 지원대상과 범위를 내년에 확대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특히 국립공원 사회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바우처 신청을 받고 바우처 혜택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돌아가도록 국립공원 바우처 운영 위원회도 조직할 예정이다.

865명에게 국립공원 생태관광 참가비를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지원대상을 저소득층 노인, 한부모 가정, 아동, 다문화 가정 등 6천명으로 늘리고 지원범위도 방과 후 학습지원 등으로 다양화할 방침이다.

공단은 올해 기초생활수급 가정 아동, 사회복지시설 아동, 장애인 등

/연합뉴스

신양파크호텔 개관 5주년 기념 고객 사운 大축제

• 행사기간: 2010. 2. 23일

객실 ₩110,000**리스토랑 10+5% 할인 이벤트**

• 신규 첫 출입 11,000원 할인

HeartPlus**황금의 5분을 아십니까?**

여행마이쮸와 함께하는 휴식시간
는 구매마다 환수증을 주는 환불마이쮸

5분마다 휴식증을 주는 환불마이쮸

여행마이쮸로 휴식증을 주는 환불마이쮸
여유로 휴식증을 주는 환불마이쮸

전화번호가 다른 게 환불증을 주는 환불마이쮸

nano.com

인터넷 쇼핑몰